

# Blue Archive

[scenario]

Kyungjin Kim  
2023년 11월 26일

# Character

최초작성일	2023-11-26	최종수정일	2023-11-27
소속	아텐츠 게임 아카데미	작성자	김경진

## 작성 일자(업데이트 기록)

일시	내용	작성자
2023.11.26	시나리오 (불공정 거래) 작성	김경진
2023.11.27-	시나리오 (불공정 거래) 작성완료	김경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차

## 1. 개요

1.1 의도

1.2 주요설명

1.3 등장인물

## 2. Story

2.1 프롤로그

2.2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게 당연한건줄 안다.

2.3 뉴스좀 봐 뉴스!

2.4 지금부터 당신은 횡령죄 용의자입니다.

2.5 나대지 말랬지

2.6 요것들 봐라?

2.7 재수사

2.8 압박

2.9 이찌방!!

2.10 거북이 사냥작전

# 1. 개요

## 1.1 의도

- 블루 아카이브에서 등장하지 않은 동아리와 학원에 관한 시나리오 문서이다.
-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의 뒷세계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거래의 과정을 탐험해 캐릭터들간의 관계와 갈등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선사하는 시나리오이다.
- 각 캐릭터들의 숨겨진 의도와 배신의 칼날에 놓여있으며 한치도 누구의 말을 믿어서는 안되는 꼬여버린 거래에 얽힌 그들의 관계와 진실을 말해주는 시나리오이다.

## 1.2 주요설명

- 『???』 - 인물 이름 지칭
- 「???」 - 대사
- 【】 - 효과음
- 굵은 글씨 - 장면 전환

## 1.3 주요 등장인물

- 선생
- 아로나
- 오가타 칸나 - 발키리 경찰학교 공안국 국장
- 타카시타 하츠네 -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 검사
- 오오야마 하츠키 -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 부장
- 코마카제 라브 - 풍당풍당 헬멧단 리더
- 카와루 시논 - 크로노스 스쿨 기자
- SRT 래빗 소대 - 츠키유키 미야코 (소대장), 소라이 사키, 카제쿠라 모에
- 카메지마 고로 - 뒷세계에 몸 담고 있는 거북건설 사장, 前 검은거북파 리더
- 하루토 - 범인으로 조작된 배우 (인 게임내에서는 퍼그로 나타남)
- 오오츠카 미츠키 - 발키리 경찰학교 발키리 광역 수사대 1 팀 팀장
- 사사키 츠바사 - 발키리 경찰학교 발키리 광역 수사대 1 팀 팀원
- 나카츠카사 키리노 - 생활안전국 팀원
- 네무가키 후부키 - 생활안전국 팀원

## 2. 스토리

### 2.1 프롤로그

#### 키보토스 발키리 경찰학원 밖 - (실외/아침)

발키리 경찰학원 로비에 발키리 경찰학원 공안국장 칸나와 여러 발키리 경찰학원 소속 단체장이 나오는 순간 카제마키 마이가 빠르게 칸나와 그 일행들을 촬영 하게 된다.

『카와루 시논』

「발키리의 수사가 여전히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키보토스 모든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 발키리 경찰학원 시청각실 (뉴스화면)

여기저기에서 크로노스 보도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칸나 국장은 좋지 않은 표정으로 상황을 보고 하고 있었다.

『카와루 시논』

「샬레의 선생님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듣기 위해 발키리 경찰학원에 전격 방문을 하였습니다.」

『카와루 시논』

「이는 선생님의 신뢰도 하락에 악화된 민심을 수습 하려는 행보로 보여집니다.」

선생은 아무 말 없이 차분히 앉는다.

『선생』

「그래서.. 어떻게 해결 하려고 하는거지?」

칸나 국장은 좋지 않은 표정으로 곤혹스러워 한다.

이후 선생이 발키리 경찰학원을 떠나고 샬레 사무실로 장면이 바뀐다.

『선생』

「발키리 는 꽤나 고생을 할것 같고.. 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거지 아로나? 설명 가능한가?」

『아로나』

「이번일에 선생이 관여한 만큼 발키리 쪽에서는 바쁘게 움직일꺼 같고 총학생회 법무실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꺼 같아요..」

『선생』

「총학생회 법무실에서? 근데 이런걸 총학생회 법무실에서도 관여를 하는 문제인가?」

『아로나』

「일이 심각하게 가다 보니 이번 일은 총학생회 법무실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꺼라고 예상해요! 이번 일도 총학생회 법무실과 발키리에서 선생님이 중재를 맡으실건가요?」

『선생』

「응」

## **발키리 경찰 학원 - (실내/낮)**

칸나 국장이 발키리 경찰학원내 소속 단체장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오가타 칸나』

「어떻게 해결 할꺼야 다들..」

다른 발키리 경찰 학원내 소속 단체장들이 말을 하지 못하자 칸나 국장은 더욱 더 고심이 깊어져 간다.

『오가타 칸나』

「미츠키.. 이번건 자네가 말해보겠는가?」

『오오츠카 미츠키』

「국장.. 제가 말으라는겁니까?」

『오가타 칸나

「그래...」

『오오츠카 미츠키』

「알겠습니다.」

이후 칸나는 급한 일을 매듭지었다 생각을 하고 자리에 일어섰다.

『???』

「이거 괜찮겠습니까? 팀장」

미츠키 팀장은 그저 아무말 없이 한숨을 내쉴 뿐이다.

『오오츠카 미츠키』

「시작하자. 위에서 내려온 명령인데..」

## 2.2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게 당연한건줄 안다.

### 발키리 경찰학교 발키리 광역 수사대 1 팀 회의실 (실내/낮)

『오오츠카 미츠키』

「츠바사」

『사사키 츠바사』

「예, 팀장」

『오오츠카 미츠키』

「준비해, 지금 바로 간다.」

『사사키 츠바사』

「알겠습니다. 팀장」

미츠키 팀장은 그 길로 어디론가 떠났다.

### 거북건설의 건물 로비 - (실외, 실내/낮)

【딩동】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거북건설의 사장 카메지마 고로가 나왔다. 로비로 나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발키리 광역 수사대 1 팀 인원들이 들이 닥치기 시작한다.

『카메지마 고로』

「아니 우리가 동네북이야?!! 왜 광수국까지 나와서 이러십니까? 저번에 털었던거 문제 없었다고 했잖아!!」

『사사키 츠바사』

「(한심하듯이 쳐다보면서) 시끄럽다. 」

『카메지마 고로』



「아니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돈을 줬더니, 이래도 되는겁니까? 이래도 되?」

『오오츠카 미츠키』

(표정이 찡려보는 표정으로 바뀐다.)

그제서야 카메지마 고로는 자기가 실수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말 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오오츠카 미츠키』

「따라와 , 할 이야기 있어」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 취조실 - (실내/낮)**

『코마카제 라브』

「아니, 난 또 왜 여기에 끌려와있어.. 왜 나만 여기에 끌려와있냐고!!」

하츠네는 라브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본다.

『타카시타 하츠네』

「넌 또 허구한날 와서 여기서 조사 받고 있냐? 안지겹냐? 안지겨워? 사고좀 치치좀 말라니깐 진짜」

하츠네는 자리에 앉고 귀찮다는 듯이 서류 하나를 꺼낸다.

『타카시타 하츠네』

「아 그리고 다른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하나는 준비해둬라..」

「이건 뭐 빼돌려도 정도껏 빼돌렸어야지... 내가 세무사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코마카제 라브』

「아니 내가 했던게 합법적인건데 왜 나 가지고 난리치는거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못할꺼 다 해주었잖아! 왜 이제와서 뒷통수 치는거냐고!!」

하츠네가 라브의 머리통을 한대 쥐어 박는다.

『타카시타 하츠네』

「그러니까 정도껏 빼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 아주 그냥 이걸 더 때릴수도 없고...」

「세금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나도 어떻게 못한다고 말했잖아..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키보토스에서 좋은일 하는데 사용하는데..」

『코마카제 라브』

「그나저나 그 미츠키라는 애 개 어떻게 못하는거야? 나 이번에만 개한테 3 번이나 털렸어」

이 말을 들은 하츠네는 라브를 째려보기 시작했다.

『코마카제 라브』

「아니 어짜피 발키리보다 니네가 더 위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냐는거지.. 내 말은」

『타카시타 하츠네』

「좀만 기다려봐.. 뭐 나올꺼 같으니까 너가 신경쓸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 **발키리 경찰학교 키보토스 광역 수사대 1 팀 (실내/낮)**

『사사키 츠바사』

「괜찮겠습니까? 팀장」

『오오츠카 미츠키』

「아니 뭐 위에서 하라니깐 하라는거잖아. 넌 할일이나 잘 하라고.. 그나저나 어디 까지 준비 됐냐?」

『사사키 츠바사』

「이제 작전 공모 들어가고 범인만 확정 된다면 이제 습격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오오츠카 미츠키』

「빨리 하자 이런거 길게 끌어봤자 더 안좋아질 테니..」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 하츠네의 사무실 (실내/낮)**

『선생』

「안녕, 하츠네」

『타카시타 하츠네』

「아, 당신이 선생님이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 1 차장 검사인 타카시타 하츠네라고 합니다.」

『선생』

「아, 이야기 많이 들었어. 혹시 저게 뭐야?」

『타카시타 하츠네』

「아, 이거 말입니다. 미츠키 팀장 자료 입니다.」

「...」

「아니 이거 자료가 다 안넘어온거 같은데?」

「수사관님 이거 혹시 아직도 다 안넘어왔어요?」

『수사관 1』

「아.. 아직」

「아.. 하츠네 검사님, 발키리 측에서 이제 미츠키 팀장에 대한 내사를 이제 막 시작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선생』

「내사? 뭘 일 때문에 내사를?」

『수사관 1』

「그걸 물어봤는데 발키리 측에서 좀 곤란해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타카시타 하츠네』

「(의아해 하는 표정으로) 아니 곤란해 할게 뭐가 있다고..」

『선생』

「발키리랑 총학생회 법무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가?」

『타카시타 하츠네』

(하츠네의 표정이 조금씩 화가났다는 듯이 바뀌면서)

「발키리가 곤란해한다?」

「발키리가 불쾌해 하면 안되지」

「아니 우리 수사관님들 진짜 대단하시네!」

「아니 내가 키보토스 일개 검사가 발키리를 아주 곤란해 하게 할 뻔했어! 내가!」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응?!」

(화난 표정으로 바뀌면서)

「거 발키리가 곤란해 하니까 일들 하지마!!!!」

「발키리가 곤란해 하는 일들 하지마!! 발키리 경찰학교한테 허락 받고 일해!!!!!!」

「내 이야기 똑바로 들어 다들!!」

「**호의가 계속 되면은 그게 당연한건줄 알아요..**」

「상대방 기준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한다고. 알겠어요? 다들?」

『선생』

「아니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타카시타 하츠네』

「하아...」

## 2.3 뉴스좀 봐 뉴스!

### 발키리 경찰학교 근처 교차로 - (실외/밤)

『오가타 칸나』

「미츠키 팀장」

『오오츠카 미츠키』

「예, 국장」

『오가타 칸나』

「잘 할수 있겠지?」

『오오츠카 미츠키』

「국장.. 왜 겁니까? 만에 하나 잘못 됐을 경우 내치기 쉬우니까?」

『오가타 칸나』

「너 그래도 일 잘하잖아,..」

「이번 일 잘 처리하면 너의 힘이 더 세지잖아.. 그냥 좋은 커리어 하나 쌓는다 생각해」

### 총학생회 법무실 법무 학원 검찰부국 복도 (실내,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하츠네.

사탕을 먹으면서 걸어다니는게 비싼 점심을 먹은걸 티 내는 모습인 하츠네, 핸드폰이 울린다.

하츠네가 번호를 확인하더니 부장의 전화였다.

『타카시타 하츠네』

「아 또 뭘 갈굴라고 전화를..」

(전화 받으면서)

「아 예 하츠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오야마 하츠키』

「안녕하십니까는 무슨.. 어디야 너, 밥은 먹었어?」

『타카시타 하츠네』

「아 지금 막 먹고 왔죠..」

『오오야마 하츠키』

「뭐 먹었는데?」

『타카시타 하츠네』

「저 나가서 스시 먹고 왔는데요?」

『오오야마 하츠키』

「누구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너는 지금 좋은가보다? 어제 또 귀가 하면서 한탕 하고 왔냐?」

「하.. 이런 개념 없는 것.. 니 혼자서만 맛있는거 먹고... 니하고 나하고 식구 맞냐?」

『타카시타 하츠네』

「식구요? 식구 맞죠 그럼 ㅎㅎ」

『오오야마 하츠키』

「그러면 발키리는?」

『타카시타 하츠네』

「발키리하고 우리하고 뭐,.. 어떤.. 어떤 식구요?」

『오오야마 하츠키』

「(표정이 진지한 얼굴로 바뀌면서) 식구라면서 험하게 하는거 아니다 임마. 너 요새 발키리의 오오츠카 미츠키 팀장 뒷조사 하고 다닌다면서?」

『타카시타 하츠네』

「부장님! 부장님! 내가 재미있는 정보를 가져왔는데 이거 재미있는 정보야」

『오오야마 하츠키』

「시키지도 않은 일 하지마라」

『타카시타 하츠네』

「아니 그걸 왜 시작도 안했는데 하지말라 하십니까? 그거」

『오오야마 하츠키』

「야 임마 그거 시작도 안했으니까 ...」

하츠네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순간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오오야마 하츠키』

「(갑자기 표정이 화난 얼굴로 바뀐다.)

야 이 망할 자식아!! 일루와!!」

「(하츠키가 하츠네의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시작도 안했으니까 하지말라고 하는거 아니야!」

「자꾸 기어오를려고 하지말고!!」

「**뉴스좀 봐 뉴스!!!**」

「너는 뉴스도 안보냐?!」

하츠키 부장이 하츠네 검사 사무실을 박차고 나간다.

『타카시타 하츠네』



「부장님 사랑합니다.」

『오오야마 하츠키』

「웃기고 앉아있네」

하츠키 부장이 나간 이후 하츠키의 표정이 짜증나는 표정으로 바뀌면서

『타카시타 하츠네』

「아..으 겁나 짜증나네 정말 진짜로.. 아니 부장님 오면 진작에 연락하지 그랬어요.  
수사관님들 으..」

서둘러 하츠네는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키고 미츠키 팀장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았다.

하츠네가 찾아본 핸드폰에서 미츠키 팀장에 관한 기사는

“선생의 방문 이후 달라진 발키리”, “최고 검거율 키보토스 광역수사대 제 1 팀장  
오오츠카 미츠키 반장의 전격 투입” 등 여러 기사들이 떠 있었다.

『타카시타 하츠네』

「... 아」

「기분 좋게 맛있는거 먹고 왔는데 갑자기 짜증날려고 하네 정말로..」

## **거북건설의 건물 옥상 - (실외/낮)**

『카메지마 고로』

「기사 잘 봤습니다. 팀장, 그래서 어찌하실 생각인가요?」

『오오츠카 미츠키』

「뭐 좋은건이라도 있냐?」

『카메지마 고로』

「뭐 저야 좋은건이야 항상 많죠 하하..」

「그래서 말인데 이번건은 제가 팀장님을 확실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오츠카 미츠키』

「???」

『카메지마 고로』

「뭐 우리한테 저당 잡힌 인원중 이전에 횡령으로 걸려서 잡혀 들어갔었던 녀석이 한명이 있는데...」

「어때..」

「그녀석으로 통치실까요?」

『오오츠카 미츠키』

「아직 준비도 된것 아니잖아... 준비 되면 다시 연락해」

『카메지마 고로』

「아, 넵 준비 준비되면 연락해드리겠습니다.」

미츠키는 바로 발키리로 복귀하려고 차에 탑승을 했다.

이때 선생한테 연락이온다.

『선생』

「잠깐 살레 오피스에서 이야기좀 할까?」

『오오츠카 미츠키』

「그러쥬.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 살레 집무실 - (실내/저녁)

『선생』

「여기 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뭐 나도 퇴근 해야되서 짧게 이야기 할꺼니깐 근처에  
앉아」

「요새 좀 수상한짓을 하고 다니는거 같은데」

(당황한 표정을하는 미츠키)

『오오츠키 미츠키』

「....? 갑자기 무슨말이십니까?」

『선생』

「무슨 수상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만둬라.. 오래걸려도 상관없으니깐  
제대로된 범인을 찾아.. 이건 경고다..」

『오오츠키 미츠키』

「그런.. 선생님께서는 그런 경고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

「그렇게 나오시겠다면야...」

「일단 알았다..」

「그런데 이걸 알아둬라」

「니 주위엔 너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발키리를 띄워주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막나간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 수상한짓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일을 해..」

『오오츠카 미츠키』

「(일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면서)

충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선생』

「어.. 가봐」

선생은 미츠키의 눈빛을 제대로 보면서 미츠키의 눈빛이 제대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무언가 한바탕 일이 터지겠다 라는 직감을 가져 아로나에게 총학생회 법무실 법무  
학원과 발키리 경찰학교간의 관계를 듣기 시작하였다.

## 2.4 지금부터 당신은 횡령죄 용의자입니다.

『아로나』

「발키리와 총학생회 법무부 학원과는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걸로 유명해요.」

「서로서로가 뜻이랑 하는 방식이 달라서 자주 싸움이 일어난다고 해야되나? 」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서로가 생각하는게 많이 달라서 제대로된 사건을 처리 못할 뻔한 일도 있었어요」

『선생』

「???」

이후 선생은 과거에 있던 자료를 찾아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선생』

「아로나, 그러면 과거에 있던 일들 쪽 나열해줄수 있어? 내가 여기에 오기 전 까지 말이야」

『아로나』

「네! 언제나 도와드리겠습니다.」

### 풍당풍당 헬멧단 아지트 근처 - (실외/낮)

풍당풍당 헬멧단에 찾아간 하츠네 검사는 오늘도 라브의 아지트를 털고 있었다.

『타카시타 하츠네』

「그러니까 내가 사고치지 말라 그랬지? 너 이번에도 수영복 복면단 애들한테 또 털렸다면서? 이건 뭐냐? 이건 또 어떤 밀수품이냐?」

『코마카제 라브』

「아!! 진짜로 왜 또 왔어! 또 언놈이 신고 한거ㅇ..」

하츠네는 라브에게 주먹 한대를 날렸다.

『코마카제 라브』

「음...」

코마카제 라브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다.

『타카시타 하츠네』

「이 녀석 당장 연행해, 어딜 검사한테 개기고 있어!」

『총학생회 법무부 경비원들』

「넵!」

『???』

「어이! 거기 까지만 하지!」

「타카시타 하츠네와 총학생회 법무부 경비원들」

『???』

「오오츠카 미츠키」

「코마카제 라브 저 녀석은 내가 데려간다. 검사님은 빠지쇼!」

『타카시타 하츠네』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뭐야? 발키리가 여기에 끼어들 일은 아니잖아?」

『오오츠카 미츠키』

「총학생회 법무부 실장님한테 허가 받았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츠키는 하츠네에게 협조공문을 들이민다.

『타카시타 하츠네』

「뭐야 이거?」

이후 하츠네는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타카시타 하츠네』

「부장님, 하츠네입니다. 아.. 넵. 알겠습니다.」

하츠네는 전화를 끊고

철수한다.

이후 하츠네와 그 일행들은 철수하고 미츠키는 츠바사에게

『오오츠키 미츠키』

「나 잠깐 갈곳이 있어서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

『사사키 츠바사』

「알겠습니다.」

이후 미츠키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오오츠키 미츠키』

「준비 다 됐어?」

「오케.. 지금 간다.」

**거북건설이 운영중인 어느 폐차장 - (흐린 날씨/낮)**

『카메지마 고로』

「와.. 이 사람 전적 엄청 화려하네요.」

「횡령에... 절도에... 사이버범죄에...」

『하루토』

「그.. 그게 무슨 말씀이고 여긴 어디고 누구신지..」

『카메지마 고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맞아 안맞아?」

『하루토』

「사.. 사복 발키리세요? 얼마전에 조사 받고 풀려났어요! 알리바이도 확실했고요!」

『카메지마 고로』

「맞습니다. 예! 하면 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을 질질 끌고 있네요! 빨리좀 끝냅시다!  
이게 뭐하는거야」

「우리는 참새들이 아니니깐 당신이 뭘 했던 말던 내 알빠 아니고...」

「지금 부터 당신은 **횡령죄 용의자**입니다.」

(하루토는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며)

『하루토』

「저한테 왜... 왜 그러세요 원하는 거라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게 있으면 다 해드릴게..  
말씀좀 해주세요」

『카메지마 고로』

「(들은체도 하지 않은체 카메지마 고로는 핸드폰을 받으며)

아! 여보세요!」

.....

### **발키리 경찰학원 - (실외/낮)**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시논을 포함한 기자들의 질문이 정신없이 쏟아진다.

『기자 1』



「왜 횡령을 하신거죠? 생활고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더이상 할 말이 없으신겁니까?」

『기자 2』

「횡령을 하게된 동기가 어떻게 된겁니까?」

『카와루 시논』

「처음 부터 발키리는 H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지만, 원만한 검거를 위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발키리 공안 국장실 - (실내/낮)**

칸나는 커피를 마시며 아무말 없이 TV 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카와루 시논』

「발키리는 H 씨의 검거와 함께 범행 현장에서 H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와 범행에 쓰인 단말기, 그리고 지문 등 증거까지 완벽하게 확보 했다고 밝혔습니다.」

### **총학생회 법무부 검찰부 하츠네의 사무실 - (실내/낮)**

TV 로 미츠키의 기자회견의 모습을 보는 하츠네

『카와루 시논』

「이로써 지난 몇 달 동안 키보토스에 충격을 주었던 횡령 사건은 종결을 짓게 되었습니다.」

『타카시타 하츠네』

「출세 제대로 하셨구만. 제대로 했어」

「(표정이 짜증나는 표정으로 바뀌면서)」

아.. 오늘도 맛있는거 먹으러 가는데.. 입맛을 다 버리겠다. 진짜로 뭐하자는건지...」

## 샬레 오피스 선생 사무실 - (실내, 낮)

『선생』

「좀 수상하지 않아?」

『아로나』

「네, 뉴스 내용도 그렇고 갑자기 잡혔다는것도 그렇고 뭔가 좀 수상한게 많은거 같아요..」

『선생』

「진짜 뭔가 찌리는게 있어서 보안에 불인건지 아니면 수사에 혼란이 있어서 보안에 불인건지...」

「둘중 하나인거 같은데..」

『아로나』

「일단은 당분간 쪽 지켜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선생』

「.....」

## 발키리 취조실 - (실내/낮)

하루토를 취재하는 칸나 국장, 어딘가 맞은 흔적이 있다. 칸나 국장은 취조를 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을 받았지만 제대로된 증거가 아직 없어 하루토를 계속 취조 하고 있었다.

『오가타 칸나』

「.....」

『오가타 칸나』

「너 말하는게 이상한거 알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거 같은데 꿈수 한번만 더 부리면 험한꼴 당한다. 제대로 똑바로 말해」

그러던중 취조실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미츠키 팀장이 서류를 들고 취조실에 들어온다.

『오오츠키 미츠키』

「마유미 2 팀장에게 단말기 기기를 조사 요청을 해냈고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칸나 국장은 바로 취조실에서 나간다.

『오오츠키 미츠키』

「지장 찍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루토가 한 장 한장 진술서를 넘기면서 지장을 찍는 동안 미츠키는 하루토의 파일을 보면서)

횡령에... 절도에... 심지어 해킹에...」

「참 어메이징하게도 살았구만」

「빨리 찍어, 빨리 끝내자 나 피곤해」

## **발키리 경찰학교 근처 골목길 - (실외/낮)**

『오오츠키 미츠키』

「내가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 그랬지?」

『카메지마 고로』

「우리 팀장님 너무 매정하시네...」

『오오츠키 미츠키』

「어쨌던간 연락하지마 당분간.. 내가 연락을 줄테니까..」

## 2.5 나대지 말랬지.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국 회의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살레의 선생님이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국 회의실에 들어와 정례 회의를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번 횡령 사건건 때문에 온듯 한데 하츠네는 뭔가 일이 안풀리는지 머리가 복잡해 보였다.

『오오야마 하츠키』

「어쨌던간 저희들이 보고 드릴건 여기 까지고 그리고 이번 횡령건은...」

『선생』

「...」

『오오야마 하츠키』

「타카시타 하츠네 검사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타카시타 하츠네』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며)

제가.. 말입니까?」

『오오야마 하츠키』

「어떤 문제 있습니까?」

『타카시타 하츠네』

「아닙니다. 해야죠.. 다른 일이 많긴 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

「별일 없이 빨리 끝내자 이런일 오래 끌어봤자 좋지도 않아..」

『타카시타 하츠네』

「알겠습니다..」

###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 하츠네 사무실 - (실내/아침)**

짜증나는 표정으로 수사관 1 에게 말하는 하츠네였다.

『타카시타 하츠네』

「내가 회의중에 전화하지 말라했죠?」

『수사관 1』

「발키리에서 이번 라브건 때문에 계속 자꾸 연락이 오는데..」

『타카시타 하츠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코마카제 라브 조사할꺼가 있어서 움직였다고. 뭐가 문제야 도대체」

『수사관 1』

「그렇게 계속 이야기 해봤지만...」

『타카시타 하츠네』

「나보고 참고인 조사 받으라는거야? 뭐야 이거 안되겠다 내가 직접 발키리에 가야겠다.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뭐하자는건지...」

『수사관 1』

「아니 그건 안됩니다. 그나저나 이거」

타카시타 하츠네 검사 앞으로 온 우편봉투였다.

우편 봉투파일을 열어보니 라브와 은밀하게 뒷거래 했던 장면들이 다 찍혀있었다. 무기 거래건 부터시작해서 뒷돈.. 서류 위조 등등

『타카시타 하츠네』

「(멘탈이 깨진 표정으로)

이것들이 진짜..」

하츠네는 바로 수사관 1 을 다시 불러서

『타카시타 하츠네』

「오오츠카 미츠키 팀장 통화내역 영장 받아서 뽑아놓고, 그 팀장 한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요」

『수사관 1』

「영장은.. 어떤 건으로」

『타카시타 하츠네』

(수사관 1 을 화난듯이 째러본다)

『수사관 1』

「아아아.. 알겠습니다..」

## **아비도스 골목길 - (실외/낮)**

『오오츠카 미츠키』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또 뭔일이야..」

『카메지마 고로』

「아니 뭐.. 하하 좋은일 때문에 연락 드렸죠.. 그 팀장님 따라다니는 검사님 우리가 뒷조사 해서 그 뒷조사한 사진을 뽑아서 다 보냈으니까 뭐 이후로 더 일을 벌리진 못할겁니다..」

「좋게 생각합시다. 하하 그래도 팀장님 일 덜어드린다 생각하고.. 나머지만 정리하면 되요..」

그 순간 카메지마 고로에게 돌려차기를 하는 미츠키 였다.

『오오츠카 미츠키』

「(정말 화가난 표정으로)

**나대지 말랬지..」**

『카메지마 고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이거 팀장 목만 날아가는게 아니라..」

미츠키는 또 주먹을 날린 뒤, 카메지마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타이밍이 맞게 거북건설 오토마타들이 미츠키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고 미츠키는 카메지마를 내려 놓는다.

『카메지마 고로』

「아니 그 하루토 그 사람 아직 끝난게 아니잖아요!! 팀장님!! 그런애가 언제 사고칠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터지면 누군가가 그걸 치워야 하고 이런일 누가 합니까? 진짜로!!」

『오오츠카 미츠키』

「내가 거북건설 다시 쳐 들어가기 전에 니네 애들 몇명 하고 니네 사업장 몇개 추려서 정리해..」

『카메지마 고로』

「아!, 그런거 라면 벌써 준비해두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습니까? 이정도로 보험 들어놓는 사람이 어디있다고 ㅎㅎ..」

『오오츠카 미츠키』

「하루토 내일이면 총학생회 법무실로 넘어가. 잘못 되면 다 같이 죽는거야 알지?」

『카메지마 고로』

「이정도로 쉴드 쳐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오츠카 미츠키』

「이거 오래 끝지말자.. 귀찮다..」

미츠키는 다시 발키리로 복귀한다.

『카메지마 고로』

「후후후 나만 혼자 죽을수 없지요.. 오래 오~~~ 래 가야지 ㅎㅎㅎㅎㅎ . 철수 합시다..」



## 2.6 이것들 보라?

###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 하츠네 사무실 - (실내/낮)

『수사관 1』

「하루토 담당 변호사가 지금 막 갔는데.. 취조 준비하시겠습니까?」

『타카시타 하츠네』

「귀찮은데.. 취조해서 뭐 있나요? 마무리가 거의 다 되서 넘어오긴 했는데..」

『수사관 1』

「뭔가 이상해서 그런데요?」

『타카시타 하츠네』

「...」

「에휴」

「참 이상해」

『수사관 2』

「검사님, 지금 막 오오츠키 팀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관찰실 앞에서 대기중입니다.」

『타카시타 하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따가들 봐요.」

### 관찰실 앞 - (실내/낮)

조사실 안에서는 취조를 받고 있는 하루토가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하츠네와 미츠키는 함께 조사실에 서있고서는

『타카시타 하츠네』

「참 저런 사람들 보면 여기 와서 억울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진짜로 억울해서 그런건지 알 수가 없어 맨날 지겹게 들어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항상 나오니깐..」

「나도 전에 검사가 되기 이전 교육생 시절때 다른 학원에 학생들한테 가서 법률 조언이나 상담 하고 그랬어요.. 몇 애들도 도와 주기도 했고」

「(이 와중에 오오츠카 미츠키 팀장은 계속 진지한 표정으로 조사실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아니 이거 재미있는 건데.. 안웃긴가? 하여튼 간 발키리 애들의 유머 감각이란.. 맨날 진지하게 좀 살지 마요. 피곤해.. 좀 인상 쓰지 말고 누가 보면 내가 조사 받는 줄 알겠და야..」

『오오츠카 미츠키』

「검사님, 마무리는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타카시타 하츠네』

「아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오오츠카 팀장님이 다 능력이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건데.. 나야 뭐 다 된 요리에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그런 포지션이지..」

「근데 내가 오라는 건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고 ..」

「(하츠네는 살짝 미츠키의 눈치를 보면서)

전 검은거북파 리더, 현 거북 건설의 대표이사..」

「이 사람 털다가 만 이유가 뭡니까?」

미츠키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하츠네를 째려보기 시작한다.

『타카시타 하츠네』

「아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원래 그런 스타일의 사람도 아니기도 해서 들은거라..」

『오오츠카 미츠키』

「(미츠키는 다시 조사실을 바라보면서..) ..간단히 말하면 증거 부족입니다..」

『타카시타 하츠네』

「(어이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아니, 정말 왜 이래 능력 있는 사람이..」

「그래 뭐 내가 코마카제 라브가 하도 속을 썩이고 다니니까 몇개 조건은 내가 타협을 했던 말이야..」

「근데 누가 봐도 이거가 걸리지 않는 타협이고 나나 그 라브라는 녀석이나 둘다 손해볼꺼 없는데 말이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며)

근데 일이 꼬여버려서 이게 복잡하게 되어버렸어.. 내가 아무리 거기 있다 한들 뭐 알고선 협박을 해야할꺼 아니야?」

「그런데 이런 무모한일을 해서 나대는건 전 검은거북파 리더인 카메지마 고로 같은 말이지..」

『오오츠카 미츠키』

「그러면 검사님이 직접 나서는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타카시타 하츠네』

「누구는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지 안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그래 내가 미츠키 팀장 조금 털긴 했어.. 내가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암튼 그래도 말 없이 넘어갔으니깐 된거 아닙니까..」

「(미츠키 팀장은 계속해서 하츠네 검사를 째려본다)

하여간 그 거북이인지 고래인지 상어인지.. 조리하다 보면 뭐라도 음식이 만들어지겠지.. 부탁할게요. 개인적으로다가..」

『오오츠카 미츠키』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거북 건설건은 제 손으로 종결 시켰으니 다시 재수사 하기가 어렵고요.. 이 하루토  
횡령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실게 없으면 그만 발키리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타카시타 미츠키』

「(요놈 봐라 라는 표정으로)

정중하게 부탁하는건데도?」

오오츠카 미츠키가 관찰실에서 나간다.

『타카시타 미츠키』

「하.. 진짜 저렇게 개념이 없네 개념이 없어」

이후 미츠키는 변호사가 들어온 것 까지도 보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 하려고 했지만

『하루토』

「다 같이 죽자는거야!! 뭐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변호사』

「?! 아니 이 사람 왜 이래 수사관!! 수사관!!!!」

『타카시타 미츠키 』

「?!」

『하루토』

「나한테 약속을 했잖아!!!! 나한테 약속을 했잖아!!! 왜 약속을 안지켜!! 안지키냐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카메지마 고로! 거북건설 사장 당장 오라고해!!! 당장 오라고해!!!!!!」

『타카시타 미츠키』

「(검은 거북파 리더가?)」

이때 미츠키는 관찰실에서 빠르게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면서 수사관 1 한테 전화를 건다

『타카시타 미츠키』

「수사관님 자료 다 넘어왔죠? 지금 봐도 되는거죠?」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카메지마 고로와 미츠키 팀장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던중

『타카시타 미츠키』

「어?」

「이것들 봐라?」

## 2.7 재수사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 조사실에 들어간 하츠네 검사 하루토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하루토는 이상하게 하츠네 검사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타카시타 하츠네』

「야」

『하루토』

「...」

하츠네는 말이 없는 하루토 때문에 정신차리라는 의미로 책상을 걷어 찼다.

『타카시타 하츠네』

「야!!」

『하루토』

「(겁먹은 표정으로)

예?」

『타카시타 하츠네』

「(매우 화가난 표정으로)

야!!!!!!」

『하루토』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짓는다.)

예..」

『타카시타 하츠네』

「너 나한테 할말 없냐?」

『하루토』

「....?」

『타카시타 하츠네』

「나한테 할말 없냐고!!」

(순간 하루토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린다.)」

『타카시타 하츠네』

「니가 안했잖아! 맞아, 아니야?」

『하루토』

「예..? 예??!」

『타카시타 하츠네』

「너 사실 범인 아니잖아..」

하루토는 거친 숨을 멈추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하츠네는 화장지를 뜯어서 내밀어준다.

『타카시타 하츠네』

「여기는 억울한 사람들 풀어주는 곳이야 또 그렇게 하라고 있는 곳이고 정신 차려」

이후 하츠네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타카시타 하츠네』

「망할 자식들...」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

「여보세요」

『타카시타 하츠네』

「(정말 화난 표정으로)

너는 아주 키보토스 검사가 진짜 우습게 보이냐 보다?」

「대체 뒤에서 뭘 짓을 하고 다니는거야! 내가 부탁한것도 있는데 그렇게 귓등으로 쳐  
듣더니.. 너는 진짜 검사가 우습게 보이는거야? 어?」

『???』

「여보세요!!」

『타카시타 하츠네』

「야! 너는 뭐 발키리 뱃지 한 100 개씩 차고 다니냐? 너 임마 내가 박살을 내줄테니까  
기다려!! 임마!!」

하츠네는 자기 할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타카시타 하츠네』

「아.. 피말리네」

『오오츠카 미츠키』

「하.. 이 검사란 사람이 저녁을 뭐 잘못 드셨나?」

발키리 경찰학교 오가타 국장 사무실 미츠키가 노크를 하며 들어간다.

『오가타 칸나』

「담당 검사는 만났어?」

『오오츠카 미츠키』

「별일 없을겁니다. 우리측에서 넘긴 증거 자료들 별 무리 없어 넘어 갈 것 같습니다.」



『오가타 칸나』

「알았어.. 그리고」

「아까 선생한테 연락을 받았다..」

「니네 팀 문제 있다고 .. 한번 손을 봐야겠다고..」

『오오츠카 미츠키』

「선생님? 께서요?」

「손을 볼꺼면 이번 사건이 끝나도 봐도 될꺼 같습니다만..」

『오가타 칸나』

「그렇게 전했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건 끝까지 가봐..」

### **하츠키 부장 사무실 - (실내/낮)**

『오오야마 하츠키』

「타카시타 하츠네 제 1 차장 검사.. 그게 무슨 말이야? 뭐? 다시 말해봐봐」

『타카시타 하츠네』

「재수사요」

『오오야마 하츠키』

「야.. 이게 재수사할만한 사건이야? 너 아침에 잘못 먹었어?」

『타카시타 하츠네』

「이거 재수사 해야합니다. 발키리측에서 배우를 고용한거예요」

『오오야마 하츠키』

「발키리측에서.. 뭐라고? 배우 고용? 확실한 근거는?」

『타카시타 하츠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오오야마 하츠키』

「...」

『타카시타 하츠네』

「아니 진짜라니깐요」

『오오야마 하츠키』

**「야 너 이리로와!!!!」**

(순간 하츠키 부장이 하츠네에게 주먹을 휘두른다.)

『오오야마 하츠키』

「누구 뺨 믿고 이 자리에 앉았더니 드디어 죽고 싶어서 환장 했나?!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권총을 장전해 하츠키에게 겨누려고 하는 순간)

『타카시타 하츠네』

「(순간 하츠네는 하츠키 부장의 손을 붙잡으면서)

아니 이거 발키리에서 넘긴 증거들이 다 조작된거예요 확실합니다!」

『오오야마 하츠키』

「아니 이 망할놈이 그래도」

(하츠키는 자신의 권총을 장전한다. 」

『타카시타 하츠네』

「아니!!! 아니란놈을 이게맞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루토 애는 배우라니까요!!」

(잠깐 멈칫 하는 하츠네 부장을 보고 더 힘을 받아서)

「제가 증명할게요! 증명해 보이면 되잖아요!!」

「재수사 허가해주시요..」

하츠키 부장은 권총을 내리며 잠깐 생각에 잠기며 말한다.

『오오야마 하츠키』

「이건 내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본부의 지시가 떨어질때 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마 알았어?」

「아.. 진짜 귀찮은 놈.. 당장 나가!」

### **총학생회 법무실 뒷 공원 어딘가 - (실외/낮)**

타카시타 하츠네 검사가 카와루 시논 기사를 만나고 있다.

『타카시타 하츠네』

「(서류를 벤치에 두고 그 옆자리에 앉으며)

여기 지켜보는 눈도 많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 이거 그냥 어디서 주워들었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

『카와루 시논』

「이게 대체 뭐길래?」

『타카시타 하츠네』

「내 눈 쳐다보지 마라, 기자님은 그냥 우연히 이 공원에 가다가 이상한 소문을 그냥 들었는데 우연히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야. 카더라니까 아니면 말고.. 이런거 전문 아니야?」

『카와루 시논』

「.....」

『타카시타 하츠네』

「그럼 난 간다. 열심히 해봐」

이후 하츠네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떠나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카와루 시논은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류를 챙겨 크로노스 스쿨로 다시 돌아갔다.

## 2.8 압박

### 샬레 사무실 - (실내/오전)

『아로나』

「선생님 오늘 아침에 나온 스포트라이트 기사 보셨나요? 반응이 좋지 않아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겠어요!」

『선생』

「...? 어떤 기사길래」

어느 뉴스 기사를 보더니 선생은 당황한 표정이 아닌 갑자기 화난 표정이 되었다.

「선생

아로나 당장 발키리 공안 국장 연결해」

### 발키리 공안 국장실 - (실내/오전)

『오가타 칸나』

「네, 안그래도 기사를 보았습니다.」

「넵」

「넵」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 지금 빠르게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키리노! 키리노!!!」

키리노가 공안 국장실 문을 열고

『나카츠카사 키리노』

「차.. 찾으십니까 국장?」

『오가타 칸나』

「따라와!」

칸나 국장이 키보토스 광역 수사대 1 팀으로 들어왔다.

『오가타 칸나』

「니들 일처리 이딴식으로 밖에 못해?! 미츠키 팀장 어디있어?!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해!!」

### **총학생회 법무부 검찰부 하츠네의 사무실 - (실외/낮)**

인터넷 기사에 커다랗게 쓰여져 있는 “횡령 사건의 진실, 제기되는 의혹들” 느긋하게 크로노스 스쿨에 쓰여져 있는 기사를 보고 있는 하츠네 밖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리자 바로 책상 밑으로 숨어든다.

『수사관 1』

「지금 안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책상 밑에서 숨죽여 있는 하츠네 그 와 동시에 문이 벌컥 열리며 하츠키 부장이 씩씩 거리며 들어온다.

『오오야마 하츠키』

「애 어디갔어? 발키리와 총학생회 법무부 합동으로 발각 뒤집어 놓고는 어디로 도망갔어 이거!」

「애 들어오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알았어?」

『수사관 1』

「네, 알겠습니다.」

방을 나가는 하츠키 부장, 이후 책상밑에서 숨죽여 나오는 하츠네

『타카시타 하츠네』

「아니 어찌자고 부장과 같이 들어왔..」

이때 다시 문이 벌컥 열렸다.

『타카시타 하츠네』

「(당황한 표정으로 바뀌며)

아..」

『오오야마 하츠키』

「너.. 엘리트 위에서 놀 생각 하지마라. 그러다가 너만 손해본다..」

하츠키는 바로 책상 위에 있는 하츠네의 권총을 거꾸로 잡아 그 권총으로 하츠네의 머리를 때리고 갔다.

『오오야마 하츠키』

「총도 총 다운걸 써야지.. 이건 무슨..」

『타카시타 하츠네』

「(정말 아픈 표정으로)

아웃 아아아.. 아으 씨..」

머리에 제대로 맞았는지 아파 보이는 하츠네.. 이때 하츠네 핸드폰에서 전화가 걸려온다.

『타카시타 하츠네』

「여보세요. 아오 아파.. 누구요?」

「아 ~ 오오츠키 팀장님? 어쩐 일이에요? 어찌다가 이런 기사까지도 다 나왔대」

「예? 만나자고요? 잠깐만요 일정 좀 보..」

「아 일정 되겠네 어디서 볼까요?」

## 총학생회 법무부 법무 학원 근처 카페 - (실외/낮)

『타카시타 하츠네』

「공사가 다망하신 사람이 어떻게 일개 검사 다 보자고 그러시고.. 뭘 일이에요?」

『오오츠카 미츠키』

「(아니꼬운 표정으로)」

검사님 사람 화나게 하는 재주가 참 좋네요..」

『타카시타 하츠네』

「거 밖인데 말조심좀 하시지? 바로 빨리 이야기 하고 들어가시죠 자 빨리 까볼건 까보고 아니면 바로 들어가고..」

바로 미츠키 팀장은 서류를 꺼내서 하츠네 검사에게 준다.

『오오츠카 미츠키』

「크로노스 스쿨에다가도 뿌렸습니다..」

『타카시타 하츠네』

「응? 크로노스에게도 뿌렸다고?」

「내가 아는 그 크로노스?」

『오오츠카 미츠키』

「크로노스 애들 지금 이걸 때문에 뭐 하나라도 알아낼려고 미쳐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애네들 실적들좀 올려줄 겸 줬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랑 협상도 하러 간거였고요」

『타카시타 하츠네』

서류 봉투 안에 내용물들을 보고 다시 넣는다.



「미츠키 팀장이 실력 하나는 좋은건 알겠는데... 그 크로노스 애들.. 좀 잘못된 정보도 많이 쓰는 애들이 많아.. 뭘 그런애들한테 뿌린다고..」

서류 봉투도 같이 찢어 버린다.

「아 그래 우리 팀장님이 선물을 줬으니 나도 답례를 해야겠지? 받으세요..」

미츠키와 거북건설 사장인 카메지마 고로의 통화 내역을 건넨다.

「아니 거북건설이랑은 원놈의 통화를 많이 하셨대? 나도 조사를 해보니 이게.. 아니 못친게 아니라 일부러 안친거더구만..」

미츠키는 통화내역 서류를 보았다.

「(미츠키의 얼굴이 굳어져 버린다.)

이 사람아..」

「당신 위에 있는 사람이랑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마. 차라리 당신네 급이 같은 애들이랑 라이벌 가져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이 허구한날 총격전이 일어나는 키보토스에서 내가 겁이 많아서 뭐가 되었는지 알아?」

「그래서 총학생회 법무부로 들어가서 검사가 되었어 검사가..」

「내가 겁이 너무 나야지 지금은 총 쏘는것도 사실 두려워..」

이후 발키리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론가 향하는 미츠키 팀장..

통화내역을 불 태워 버리고 무언가 결심한듯 다시 발키리로 돌아갔다.

### **거북건설 카메지마 고로의 대표이사실 - (실내/밤)**

카메지마 고로의 핸드폰 벨 소리가 들린다.

『카메지마 고로』

「팀장님께서 어쩐일로 전화를..? 그러지 않아도 뉴스 기사 봤어요 언제 한번 봐야지 하고 연락 드릴려고 했는데..」

「아 범인이에요? 많이 곤란하셨나보네요 ㅎㅎ 아니 뭐 우리 사이에 부탁은 무슨 하하 알겠습니다.」

## 2.9 이찌방!!!

### 발키리 경찰학교의 키보토스 광역수사대 제 1 팀 - (실내/오전)

다급하게 뛰어 들어오는 츠바사 형사

『사사키 츠바사』

「팀장! 팀장! 이야기 들었습니까? 하루토 병원에 실려 갔다고 합니다.」

광역 수사대 1 팀을 우연히 들른 칸나 국장이 이 말을 듣고선..

『오가타 칸나』

「갑자기 병원에 왜 실려가? 그건 뭘 소리야?」

『오오츠카 미츠키』

「국장.. 제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 발키리 경찰 학교 교정소 - (실내/오전)

『타카시타 하츠네』

「뭐가 어떻게 된거야?!」

「여기 담당 누구야!」

담당이었던 네무가키 후부키가 하츠네 앞으로 가서

「제가 담당자인데요.. 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무가키 후부키가 하츠네에 가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후부키는 하츠네에게 머리를 쥐어 박히고 말았다.

『타카시타 하츠네』

「목격자 어디있어!! 목격자 당장 나오라그래!」

##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 하츠키 부장실 - (실내/낮)

『오오야마 하츠키』

「(화난 표정으로)

그러니까!! 왜 설치고 다니냐고! 니가 설치고 다니니깐 이런 일 생기는거 아니야?」

「샬레에서 이뽀 받겠다고 눈에 불을 키고 다닌 사건을 벌집 수시듯이 조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알아?」

『타카시타 하츠네』

「그래서 관련 사건 좀 더 조사중입니ㄷ..」

책상을 내리치는 하츠키

『오오야마 하츠키』

「야.. 귀찮은일 만들지 마라..」

「아 그리고 우리보다 더 곤란한 쪽은 발키리 일꺼야」

「거기에 우리까지 끼어들면 가만히 있나? 총학생회 법무실이랑 전면전 하자고 병력 끌고 쳐 들어올꺼같은데.. 아무튼 니가 마무리 잘해.. 멍청이 같이.. 발키리 한테 건덕지나 잡혀가지고..」

「...」

「나가!!」

이후 하츠네 검사는 수사관 1 한테

『타카시타 하츠네』

「미츠키 팀장에 있는 주변인물들 싹 다 잡아들여」

『수사관 1』

「예?」

『타카시타 하츠네』

「무슨일 있어도 잡아와! 무슨 일 있어도 잡아와!!!!」

「구속영장을 받아오던지 아니면 임의동행을 하던지 무슨 일 있어도 잡아와!!! 당장 잡아와!!!!」

### **발키리 경찰학교 국장실 - (실내/낮)**

『오가타 칸나』

「어쨌던간 미츠키 팀장 고생 많았어..」

갑자기 울리는 미츠키의 핸드폰 벨소리 미츠키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가타 칸나』

「뭐해? 전화 안받고」

『오오츠카 미츠키』

「아닙니다. 나중에 받도록...」

『오가타 칸나』

「받아..」

미츠키가 전화를 받는다.

『카메지마 고로』

「어떻습니까? 그래도 찹찹한 면이 있지만 깔끔해졌죠?」

미츠키는 곧 바로 아무말을 하지 못한다.

『카메지마 고로』

「진작에 이렇게 할걸 그랬나봐요 하하, 좀 찹찹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일에는 해결 하나는 기가막히게 하니깐.. 나중에 가서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오츠카 미츠키』

「나중에 다시 통화하지..」

『카메지마 고로』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츠키는 신경질 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다.

미츠키는 국장실을 나가버린다.

『오가타 칸나』

「하아..」

「키리노, 살레 연결해..」

###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 조사실 - (실내/낮)**

『타카시타 하츠네』

「야 니네는 원놈의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사냐? 어메이징하다 어메이징해..」

『사사키 츠바사』

「영장 있어? 아니 이거 모의훈련도 아니고 이게 뭐냐 대체? 영장 있어 니네들?」

『수사관 1』

「아니 그런게 아니라..」

『타카시타 하츠네』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며)

영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 뭘 개그하냐?」

「너네들이 여기에 왜 있는지 진짜로 궁금해? 그러면 당장 미츠키 한테 연락해 이 놈이 제일 잘 알고 있을꺼니까」

「어?!」

그러던중 마침 하츠네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타카시타 하츠네』

(가소롭다는 듯이 표정이 바뀐다.)

혹시 몰라 총학생회 경비국 인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하츠네 검사

아니나 다를까 대놓고 거북 건설 용역들과 같이 미츠키 팀장도 같이 보였다.

『타카시타 하츠네』

「예상대로네 진짜 하항 어이가 없어서..」

「발포 허가합니다! 선생님은 지원좀 부탁드립니다요」

결국 총학생회 경비국 인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총력전에서 이기게 되었고 협상을 하기 시작한다.

『타카시타 하츠네』

「야.. 이게 뭐하자는거야? 지금 뭐하자는 거냐고」

『오오츠키 미츠키』

「죄송합니다. 제 땀엔 검사님 기분 풀어드린다고..해서」

『타카시타 하츠네』

「(어이 없다는 표정으로)

와.. 이제서야 검사님? 이젠 검사님이라고도 부르시네? 왜? 편하게 하츠네라고 불러,  
하츠네라고 **이 개자식아!!!!!!**」

『오오츠키 미츠키』

「뭔가 오해가 있으실꺼 같아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타카시타 하츠네』

「오해? 뭘 오해 허헛 어이가 없네..」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를 멍청이로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무슨 오해?!」

『오오츠카 미츠키』

「제가 무례를 범했다면.. 제발 잊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타카시타 하츠네』

「아니 머리 좋은걸 타고났는데.. 한번 기억한걸 어떻게 쉽게 잊어버리나?」

『오오츠카 미츠키』

「여기 코마카제 라브와 함께 있었던 자료입니다. 이게 전부 다고요 카피본은 없습니다. 거북건설 건도 바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타카시타 하츠네』

「아니 하하 이거 내가 좀 손해 보는거 같긴 한데 같이 치안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러는것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에 살레의 선생이 지켜보고 있는데 .. 그만좀 하지?」

「와 진짜 발키리 경찰 학원 진짜 대단해! 이런 일에 배우를 쓸 생각을 다 하고..」

「진짜 대단해! 박수 쳐줘야되 (짝짝) 이걸 박수를 안치고선 못넘어가 하하하하

그런데 어디서 그런 연기도 못하는 애를 데려와서 이런 조작을 한거야? 어?」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선생과 칸나 국장은 말 없이 쳐다볼 뿐이었다.

『오오츠카 미츠키』

「그냥 그놈이 가장 범인 같아서 데려와서..」

『타카시타 하츠네』

「(흡족하는 얼굴로 바뀌면서)



흐흐하하하하항하항항」

「아 역시..」

「키보토스의 치안 담당 발키리 경찰학교」

「이찌방!!!!!!」

「빨리 검은거북파 애들 다 정리해야지? 팀장님?」

「이거 처리 안하면 당신 커리어도 그러고 여기 키보토스 치안 더 안좋아져.. 알고는 있겠지?」

『오오츠키 미츠키』

「네.. 넵..」

## 2.10 거북이 사냥 작전

『오오츠카 미츠키』

「마지막 경고다. 빨리 약속한 장소로 나와 여기에 나 혼자만 있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 빨리 나와」

『카메지마 고로』

「당신 미쳤어? 당신이 그렇게 당해놓고선 어딜 나가라고?! 여기서 못나간다. 긴히 할말 있으면 니가 여기로 오던지!」

「여기서 한발자국도 못나가!」

『오오츠카 미츠키』

「어디서 볼껀데.. 그럼 위치 알려줘봐..」

『카메지마 고로』

「연락 줄 테니까 당신 혼자서 와!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오츠카 미츠키』

「그러도록 하지」

『타카시타 하츠네』

「그러게 너가 이런일을 꾸미지 않았더라면 이런 힘든 고생을 할 이유도 없었잖아 왜 이래 도대체?」

이후 살레로 들어가 하츠네와 칸나 국장은 선생과 작전계획을 짜고 있었다.

『선생』

「일단 혹시 모르니 래빗소대에 지원요청은 해냈고 다른건?」

『오가타 칸나』

「별 다른건 없습니다. 미츠키 팀장이 알아서 잘 하면 될 문제 인것 같습니다.」

갑자기 칸나의 핸드폰에서 전화가 온다.

『오가타 칸나』

「선생, 실례 하겠습니다.」

칸나 국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받는다.

「오가타 국장이다. 무슨일이지?」

「(이 말을 들은 칸나 국장의 표정이 좋지 않은 표정으로 바뀐다.)

뭐?」

「하루토가 진짜로 진범이었어? 또 다른건?」

『사사키 츠바사』

「2 팀에서 전달해준 자료에 따르면 밀레니엄에서 넘어온 자료인데 이 총학생회에서 각 학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횡령하려고 별 짓을 다 했다는데요? 해킹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건 이놈이 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밀레니엄에서 찾는데 애를 먹었어요」

『오가타 칸나』

「알았다. 자세한건 나중에 듣도록 하지」

같은 시각 이 소식을 들은 하츠네 검사도 어이 없다는듯이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 작전 D-Day 거북이 사냥의 날

『타카시타 하츠네』

「왜? 아직도 기분이 좀 그러신가? 미츠키 팀장 , 긴장되?」

『오오츠카 미츠키』

「어떻게 보면 검사님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건데 잘못했다 라고 말 한마디 할만 하지 않았습니까?」

『타카시타 하츠네』

「나 참 하항 어이가 없네 시작은 누가 했었는데 아 그리고 범인이 하루토 개가 맞대매? 와 항항 정말 치밀하던데? 총학생회 지원금을 횡령하려고.. 해킹에다가 회피성으로 개명까지 했다라.. 간도 아주 크구만」

「우리 어떻게 보면 진짜 진범을 잡아놓고선 이상한 연극을 한거야..」

『오오츠카 미츠키』

「어쨌던간 진범인게 확실해졌으니 서로간의 오해도 풀고 그러는게 좋지 않을까요?」

『타카시타 하츠네』

「다른건 다 모르겠고 일단 이 건이나 잘 마무리 지읍시다..」

이후 미츠키는 거북건설 근처 뒷골에서 거북건설 사장 카메지마 고로와 마지막 협상을 하러 떠났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거북건설 사장 주위 호위 병력들을 다 데리고 왔다.

이 병력으로는 발키리 경찰학원에서 큰 피해를 입을수도 있기에 선생은 SRT 소대와 발키리 경찰학원, 그리고 유스티이아 경비국과 합동 작전을 펼쳤다.

『츠키유키 미야코』

「작전구역 돌입! 전개합니다!」

그 와중 협상을 하러간 카메지마 고로와 오오츠카 미츠키

『오오츠카 미츠키』

「그냥 자수하쇼. 내가 그래도 금방 나오게 해줄께..」

『카메지마 고로』

「내가 그 말을 믿으라는겁니까? 오오츠카 씨?」

「이런이런 저는 혹시 몰라서 주위 직속 병력들을 동원을 해서 당신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군요.. 흠」

「뭐 저 혼자서 죽을순 없으니 바로 저도 비장의 카드를 꺼내보도록 할까요?」

『오오츠카 미츠키』

「너 .. 이 자식!」

바로 냅다 달려가 카메지마 고로의 핸드폰을 낚아 채려고 했지만 주위에 있는 호위 병력들이 너무 많아 핸드폰을 뺏지 못하였다.

카메지마 고로가 SNS 에 가계정 하나 만들어서 미츠키 팀장에 관한 악점을 업로드 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핸드폰에 촬영된 녹음본으로

『카메지마 고로』

「저희야 다시 새 회사를 차리고 이름을 다시 세탁 하면되니 잡아도 소용 없습니다만.. 발키리,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 당신네들은 이런거 한번 올라가면 엄청 타격을 입고야 말잴? 하하하」

『???』

「누가 마음대로 업로드가 될꺼라고 생각했어?」

「엄호 사격 개시!」

누군가가 수류탄을 던져 주위 호위 병력이 터져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SRT 래빗소대의 소라이 사키였다.

『오오츠카 미츠키』

「뭐야.. 너 여긴 어떻게 알고?」

『소라이 사키』

「아? 혹시 몰라서 당신을 따라와봤거든.. 참 당신도 온갖 더러운일이라 더러운일을 다 했었구만..」

『카제쿠라 모에』

「사키짱! 조심해!!」

갑자기 카메지마 고로가 사키를 향해 총을 겨누고 격발을 하려던 순간..

【탕!】

총을 떨어뜨렸다.

『소라이 사키』

「와.. 방금 큰일날 뻔했네..」

『???』

「래빗 4 이쯤에서 철수합니다..」

『카메지마 고로』

「으.. 으음」

『소라이 사키』

「이쯤에서 포기하시지」

『오오츠카 미츠키』

「카메지마 고로 거북건설 사장.. 아니 전 검은거북파 리더.. 당신을 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 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카메지마 고로에게 수갑을 채우고 발키리로 다시 돌아갔다.

이후 시간이 지나 며칠 뒤

### **샬레 오피스 – (실내, 오전)**

『카와루 시논』

「발키리 경찰학원의 한 팀장이 뒷세계와 거래를 한 것을 보고 M 모 팀장을 비리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의 방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 검사측에서도 헬멧단과 은밀한 거래가 있다는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법무실 대변인측에서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H 검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이 두사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것이며 또한..」

『선생』

「그러게 검사가 되가지고 사람을 가리면서 사귀어야지 이게 뭘 소란이야..」

『타카시타 하츠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당분간 숨죽이면서 지내. 언젠간 때가 되면 자네를 총학생회 법무실 검찰부에 이야기해서 다시 복귀 시켜줄께.」

『타카시타 하츠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 **발키리 경찰 학교 공안국장실 – (실내, 오전)**

『오가타 칸나』

「앞으로 광역 수사국 1 팀장의 인원이 뿔힐 때 까지 나가이 마유미 광역 수사국 2 팀장이 1 팀장의 일을 할꺼야 괜찮겠지?」

『사사키 츠바사』

「전 괜찮습니다.」

『오가타 칸나』

「들어가봐, 아 그리고, 」

「또 뭔가 우리에게 해킹 공격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 나가이 미유미 팀장 보고 국장실에  
들어오라고 전하고 자네 일 봐.」

『사사키 츠바사』

「넵! 국장」

-完-